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5

청소년·청년의 첫 금융생활

첫 계약과 첫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절해야 할 요구를 알아본다.

큰글자 학습본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

큰글자 핵심학습본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왜 배우나요?

첫 금융생활의 작은 약속이 앞으로의 선택 범위를 만듭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첫 금융생활은 월급 액수보다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기록을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 세전 급여와 실제 입금액은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후불결제·대출은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약속이므로 결제일과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 취업이나 부업을 이유로 통장·카드·인증정보를 요구하면 넘기지 말고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PART 0 · EDU-05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뜻을 읽고 생활 예를 떠올린다.

명의

계좌·휴대전화·계약의 주인으로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 생활 예: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의 거래 책임과 확인 절차가 나에게 연결됩니다.
- 확인: 사용할 사람이 친구면 내 명의를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범죄와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무슨 일을 얼마 동안 하고 임금·시간·휴일을 어떻게 정할지 적은 약속입니다.

- 생활 예: 시급·근로시간·급여일을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급여가 입금되면 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시간·임금·업무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후불

지금 사용하고 미래의 소득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 생활 예: 신용카드·후불결제의 다음 결제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 확인: 결제 한도는 내 저축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용

약속한 돈을 갚고 계약을 지킬 가능성에 관한 기록과 판단입니다.

- 생활 예: 대출·카드 납부 기록이 쌓입니다.
- 확인: 신용점수가 낮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따른 평가이며 사람의 가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인증

나를 식별하고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 생활 예: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공식 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
- 확인: 급여 지급에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는 다른 정보입니다.

기초학습 1 · 근로계약과 급여

월급은 어떤 약속에서 생길까요?

근로계약은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하고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과 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시간을 읽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입금액과 근무기록을 대조합니다.
- 생활 예: 월 250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고정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흔한 오해: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맞으면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채용 공고의 월급과 입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볼까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기초학습 2 · 세전·세후와 공제

월급에서 왜 돈이 빠질까요?

세전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공제 뒤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공제는 모두 같은 이름과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광고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실제 입금액과 비정기 지급·공제를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 지급총액과 기본급·수당을 나눕니다.
- 세금·보험료 등 공제명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실수령액을 월 예산의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 생활 예: 연봉 3천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2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기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흔한 오해: 공제액은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돈이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항목별 근거와 계산을 확인합니다.

확인: 생활비 예산은 세전 월급으로 잡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 입금되는 세후 금액과 변동 가능한 수당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학습 3 · 후불결제와 첫 신용

지금 안 내는 돈은 공짜일까요?

신용카드·후불결제는 결제 시점과 돈을 갚는 시점이 다른 신용거래입니다. 사용액은 미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됩니다.

소액을 여러 번 쓰면 총액이 보이지 않기 쉬우므로 결제일과 누적 사용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제일과 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용 즉시 예산에서 차감해 기록합니다.
- 할부·리볼빙 등 추가 비용과 상환기간을 확인합니다.
- 생활 예: 이번 달 후불결제 5만원을 네 번 쓰면 다음 달에는 2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각각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흔한 오해: 카드한도는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허용한 최대 신용액일 뿐입니다.

확인: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이면 이번 달 지출이 아닌가요? 이번 달에 소비한 금액이며 다음 달 현금흐름에 상환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기초학습 4 · 취업·부업을 이용한 금융사기

일을 시작하는데 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정상적인 급여 지급에는 본인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자체를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자는 고액 부업, 거래대금 전달, 세금 절감 등을 내세워 계좌와 명의를 이용하고 피해금 이동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 회사명·사업자·업무내용을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선입금·대출·계좌 양도 요구를 거절합니다.
-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알립니다.
- 생활 예: 구매대행 업무라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죄자금 이동일 수 있으므로 중단합니다.

- 흔한 오해: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수수료만 받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법적·금융상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회사가 보안 때문에 체크카드를 맡기라고 하면 넘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말고 회사와 업무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PART 1 · EDU-05

학습 목표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나이와 계약 종류에 따른 동의·확인 사항을 찾는다.
- 급여명세서·플랫폼 정산·학자금·통신·구독 계약을 읽는다.
- 첫 신용카드·할부·후불결제가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 계좌·신분증·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친구·고용주·광고를 거절하고 신고한다.

PART 2 · EDU-05

핵심 구조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첫 금융기록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습관과 신용기록이 된다.
-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범죄와 피해에 연결될 수 있다.
- 급여는 입금액만 보지 말고 계약시간·기본급·수당·공제·실수령액을 대조한다.
- 통신·구독·후불결제는 각각 작아 보여도 같은 날 청구되면 생활비를 압박한다.

PART 3 · EDU-05

비교 질문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 금액·기간·해지·연체·개인정보 조항을 표시한다.
- 부모·교사·상담기관 등 신뢰할 사람에게 보여 준다.
- 계좌·비밀번호·인증번호 대여 요구에는 짧고 분명하게 거절한다.
- 계약서·명세서·해지화면을 폴더에 보관한다.

PART 4 · EDU-05

행동 순서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시작 전: 보호자 동의·본인확인·계약 상대를 확인한다.
- 첫 30일: 모든 입출금 알림과 주간 거래점검을 켜다.
- 첫 60일: 급여·정산·통신·구독·상환일을 한 달력에 둔다.
- 첫 100일: 쓰지 않는 서비스와 연결을 해지하고 계약파일을 정리한다.

PART 5 · EDU-05

확인할 권리

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을 권리
- 학자금 지원·상환 조건을 설명받을 권리
- 금융상품의 비용·위험·해지 조건을 설명받을 권리
- 불법 계좌 대여·선불 요구를 거절하고 신고할 권리
-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선택하고 철회할 권리

PART 6 · EDU-05

다섯 사례의 안전한 다음 행동

상황이 비슷해도 계약과 조건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다.

통장과 신분증

고용주가 급여 등록이라며 통장과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 한다.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친구의 계정 대여

친구가 게임 거래에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한다.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가능액 전부를 생활비로 받으려 한다.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플랫폼 수입

정산액이 매출과 달라 생활비가 모자랐다.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첫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여러 카드를 만들려 한다.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PART 7 · EDU-05

공식 근거로 확인한 사실

확정 사실과 조건 확인 문장을 구분한다.

확정 사실 · 사용자는 임금 지급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확인할 조건: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신 근로기준법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정 사실 · 근로계약의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확인할 조건: 고용형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안전 원칙 · 채용·부업을 이유로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않는다.

확인할 조건: 정상 업무인지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큰 법적·금융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출처: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PART 8 · EDU-05

생활 변화와 새 위험

하지 않을 것·확인할 것·지금 할 일을 한 문장씩 읽는다.

해외취업·고수익 부업은 출국·계좌 제공 전에 검증합니다

고수익·항공권 제공을 내세운 구인이 감금, 불법 콜센터, 자금세탁·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 않을 것: 여권·휴대전화·통장·인증수단을 고용주에게 맡기거나, 업무라며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회사 실체, 근로계약, 취업비자, 근무지와 업무를 정부·재외공관 등 독립된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지금 할 일: 의심되면 출국·송금을 멈추고 경찰에 상담하며, 해외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재외공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경찰청 ·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 주의 ·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51111095947567

PART 9 · EDU-05

오늘 할 일

실행 날짜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한다.

- ☐ 시작 전: 보호자 동의·본인확인·계약 상대를 확인한다.
- ☐ 첫 30일: 모든 입출금 알림과 주간 거래점검을 켜다.
- ☐ 첫 60일: 급여·정산·통신·구독·상환일을 한 달력에 둔다.
- ☐ 첫 100일: 쓰지 않는 서비스와 연결을 해지하고 계약파일을 정리한다.